

매달 따박따박 월배당 ETF...내 성향 맞춤형 상품은?

2024.03.19 06:00 cDaily

- +

- 시장 변동성 속 꾸준한 분배금 매력 ↑
- 투자성향·시장상황 맞는 투자전략 고르고
- 분배금 변동성·세금 따져봐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에 '제2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얻은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월배당 ETF 투자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쏟아지는 상품 중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 전략을 구사하는 ETF를 고르고, 과거의 분배금 흐름과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8일 코스콤 ETF 체크에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모두 52종이다. 월배당 ETF는 분기별로 분배금(배당)을 지급하는 일반 ETF와 달리 매월 다양한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국내에선 지난 2022년 6월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 S&P500'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꾸준한 분배금의 매력이 부각한 영향이다.

대표적인 월배당 ETF는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며, 최근에는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커버드콜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 업계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고, 금리와 거시경제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운용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배당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는 미국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TOP10' 등이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안전자산을 신호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단기채와 장기채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울 필요가 있다. 단기채는 현재의 높은 월 분배금으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용이하고, 장기채는 향후 금리 인하 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수단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다.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ACE 미국 30년국채액티브(H)'에는 올 들어 월배당 ETF 가운데 가장 많은 3325억원이 유입됐다.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증시 하락 국면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배당금과 함께 옵션 매도 이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만, 주식 강세장에서는 수익이 낮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올 들어서만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합성)', 'KODEX 테슬라인컴프리미엄채권혼합액티브',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등이 상장했다.

투자하려는 상품의 과거 분배금 흐름도 살펴봐야 한다. 월배당 ETF의 취지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만큼 과거 분배금 내역을 통해 매달 분배금의 변동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격 대비 분배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분배금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데, 한 해 발생한 분배율을 모두 더한 값인 연분배율 지표를 통해서도 분배금 수준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에 나서기 전 분배금 지급 기준일도 확인해야 한다. 지급 기준일에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어야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ETF 매수 체결 후 결제까지는 2영업일이 소요되는 만큼 분배금 지급 기준일 2영업일 전에는 해당 ETF를 매수해야 한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전략팀장은 "월배당 ETF가 인기를 끌면서 기존 상장 상품의 분배 주기만 변경해 포장시만 월배당 ETF로 바꾼 상품도 늘고 있다"며 "매달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낸단 취지에 적합한 기초자산인지와 함께 과거 배당 내역을 통해 분배금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